

'영어'를 다리 삼아 건넌 문학의 강

학생시절 꿈을 심어주었던 책들

나영균

이화여대 명예교수 · 영문학

어려서 아버지 방은 한쪽 벽 전부가 책장이었다. 거기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같은 역사책과 <세계문학전집>, <셰익스피어전집>을 비롯하여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시미자키 도손(島崎藤村), 모리 오가이(森歐外) 같은 일본작가의 작품집들도 꽂혀 있었다. 그 외에 야나기 소에쓰(柳宗悅)의 《조선의 상(床)》이나 한국 미술화집, 명필(名筆)의 서화집 같은 것들도 있었다.

아버지 서가에 꽂힌 책 모조리 섭렵

화학공학자였던 아버지는 한때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총독부 요주의 인물로 지목된 경력 때문인지 전공 아닌 분야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다. 아버지는 이따금 나에게 일본 유학시절이나 시베리아 망명시절의 이야기를 유머러스하게 해주셨다. 사회주의자로 지목받았던 일본 유학시절 형사가 항시 따라다녔는데, 하도 교묘히 그를 따돌리니까 나중에는 형사가 사정하다시피해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 공중탕이나 영화관에 함께 다녔다고 한다.

또 시베리아에서 만난 러시아인들은 인정도 많고 순박하며 술과 노래를 좋아했다고 한다. 겨울엔 기온이 영하 40도로 내려가는데, 거지들은 사람이 다가오면 뺨은 침도 얼어서 굴러갈 만한 혹한 속에서 옷통을 흘랑 벗고 알몸이 되어 구걸을 하니 얼어죽을까 겁나 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는 먼 나라에 대한 낭만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상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젊은 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다. 나에게는 이데올로기의 내용보다 이상을 추구하는 삶과 정열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여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아버지의 책장에 있는 문학 책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 그것들을 모두 이해하면서 읽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저 알든 모르든 덮어놓고 읽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번역한 셰익스피어도 40여권을 다 읽었다. 이때 읽은 셰익스피어는 나로서는 처음

읽은 영문학 작품이지만 그리 깊은 감명을 받지 못했다. 줄거리 재미에 끌려 읽기는 읽었으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까 하고 생각하던 것이 기억난다.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실감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 2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다.

콘라드도, 버지니아 울프도, 조이스도 어려서 셰익스피어를 읽고 그것을 자기 문학작품의 뼈대로 삼을 만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천재와 범재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셰익스피어와의 첫 대면을 생각할 때, 나는 나의 무감각이 스스로 어이없고 부끄러워진다. 위대한 세계의 문학을 일단 다 섭렵한 그때의 독서는 어떤 비평안(批評眼)이나 독자적인 식견이 생기기 이전에 그저 무턱대고 읽기만 한 것이었다. 돌이켜 보니,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도움이 되었다면 가치관을 세우고 생각의

방향을 잡고 정신의 내용을 쌓아올렸다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에서 그때의 독서가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때의 난독(亂讀)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연하게만 보이는 효과가 실은 나의 사람됨이나 지식추구의 방향이나 작품평가 기준의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상의 기술연마나 입시 같은 실용적인 지식습득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오늘의 나를 키워준 토양이 되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독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나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식 추구에 막연한 동경 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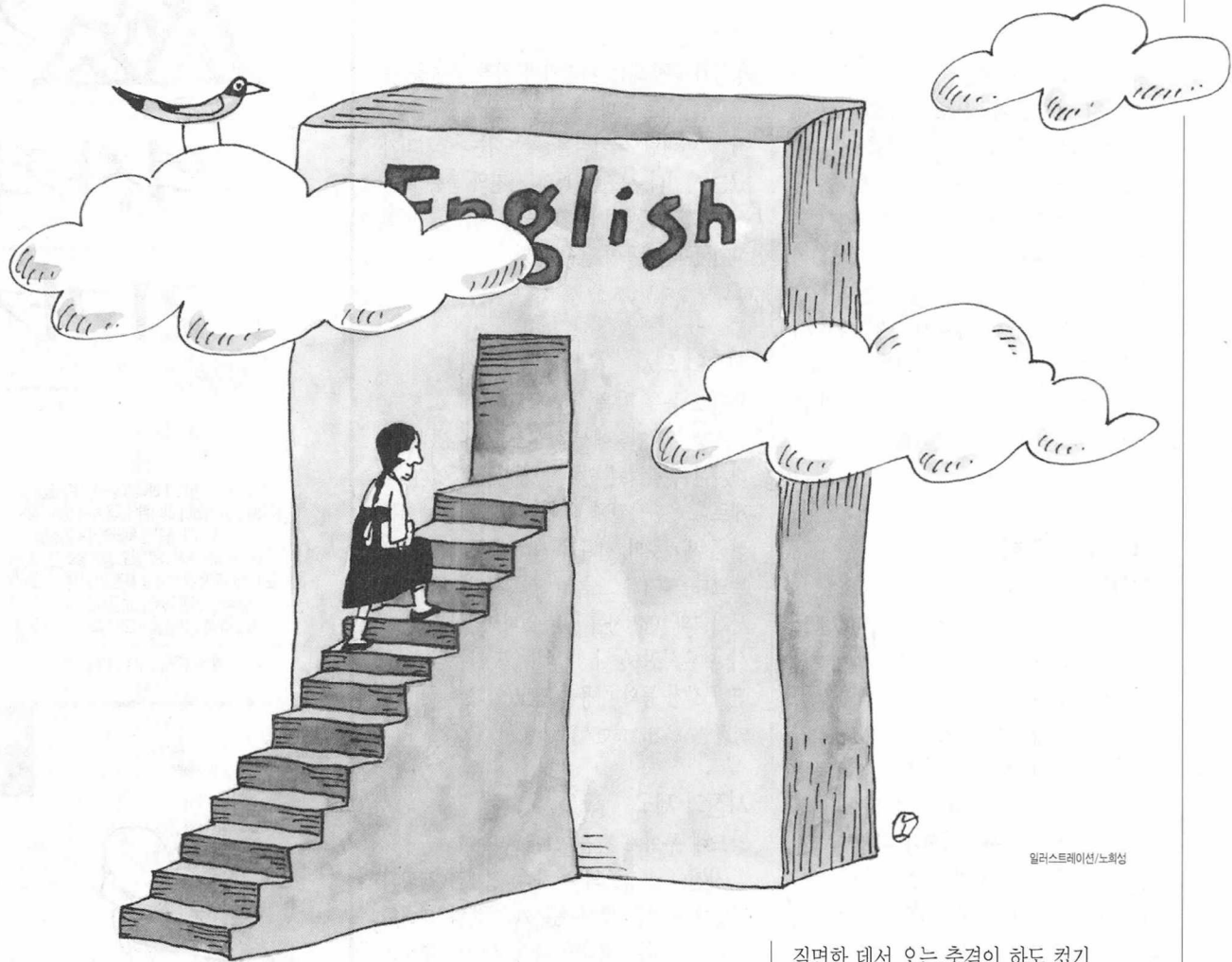
셰익스피어는 싱겁게 읽었지만 모든 작품을 다 그런 식으로 읽은 것은 아니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읽었을 때 나는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인간심리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피상적인 선악관 너머에 있는 심각한 갈등과

직면한 데서 오는 충격이 하도 컸기 때문이다.

또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일시다》는 풍자적인 고양이의 시점이 재미있었고, 《쿠사마쿠라(草枕)》나 《구비진소(愚美人草)》 등은 무엇보다도 그 높은 지성적 분위기와 문학성이 매력이었다.

그의 영국 유학시절의 경험을 쓴 일기는 서양에 간 동양인의 감상으로서 공감이 가는 데가 많았고, 동경대학 학부 때 쓴 영문학 논문은 예리한 통찰력과 높은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지식추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욕망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작가들의 간접적인 영향이었다.

해방 후 이화여대 영문과로 들어가게 된 데에는 아버지의 충고가 크게 작용했다. 아버지는 태평양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이미 일본의 패배를 예언하며 내게 영어공부를 혼자서라도 해 놓으라고 권하셨다. 영어는 어떤 학문에나 필요한 도구라는 것이었다.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

어려울 때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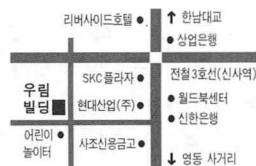
생각나는 친구

호황이라고 특별히 잘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불황의 그림자는 출판계에만
늘 질게 드리워집니다.

이렇게 어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좀더 효율적인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가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연'은 단행본의 레이아웃과 교정에서부터
잡지, 아동물, 카탈로그 등 디자인 개념이 요구되는
각종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도 만만치 않다고 자부합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어려운 문장을 해독해낼
때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은
내심 나의 오만함을 키웠다.
그런 곳대는 미국유학을 가자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열등의식은 죽고 싶을 만큼
심각했지만 그때의 밑바닥
경험은 소중한데. 혼란스러운
학생시절에 꿈을 주고
정신적인 의지를 준 것은
역시 책이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영어가 적국의
언어라 하여 교과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나는 동대문시장 헌책방에 가서 당시 제일
좋았던 남자중학교 영어교과서를 1권에서
5권까지 헐값으로 사가지고 왔다. 당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남자는
5년제 중학교, 여자는 4년제 여학교에
다니게 되어 있었다.

여학교 교과서 대신 남자 중학교
교과서를 택한 것은 그쪽이 수준도 높고
또 한 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1권부터 줄줄이 외웠다. 5권까지 다
외우고 나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던 구문도
원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웬만한 문장은
단어만 알면 대충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대 영문과에 들어갔을 때,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해방 직후의 사회는 과도기적인 현상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웠고, 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들의 학력이 천차만별이었다.
ABC도 제대로 모르는 학생도 섞여 있는
교실의 수업은 자연 초보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영어'를 매개로 얻은 문학의 낭만

남보다 일일지장(一日之長)이 있던
나로서는 지루한 시간이 많았다. 하는 수
없이 나는 학교 도서관을 뒤졌다. 영문학
작품이 들어 있는 책장은 권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나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아이반호(Ivanho)》,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생의 아이러니(Life's
Little Ironies)》 같은 책을 나는 사전과
씨름하면서 원문으로 읽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 읽는데 30분이나
걸리던 것이 문장이 익숙해지고 단어를 좀
알게 되자 그런 대로 속도가 빨라졌다.
그래도 맨 처음 읽은 《아이반호》를 때는 데
석달쯤 걸렸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한 권을
다 읽고 냅을 때의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다.

고행이나 다름없는 이런 독서를 그래도
계속시켜 준 것은 역시 작품의 재미였다.
정치적인 음모와 싸우는 정의의 기사와
그를 둘러싼 여인들의 갈등은 영어라는
매개를 통해 더욱 신비스럽고 낭만적으로
보였다.

이야기 재미에 이끌리는 한편으로 동료
누구보다도 많은 원문을 읽자는 욕심도
고개를 쳐들었다. 당시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내 주변에는
교과과정 외에 원문으로 작품을 읽는
학생은 없어 보였다.

어려운 문장을 해독해낼 때의 기쁨과
자랑스러움은 내심 나의 오만함을 키웠다.
하찮은 영어회화 문장을 외우지 못해
찢찢매는 친구들이 우스워 보였다. 그런
곳대는, 그러나 미국유학을 가자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셰익스피어를 유행가 외우듯
외우고 라틴어를 줄줄 읽고 두 시간이면
장편 한 권씩 읽어내는 미국 학생들을 무슨
수로 당한단 말인가.

그때 내가 느낀 열등의식은 죽고 싶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노력을 할 만큼 해도
모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당할 수는
없었다. 낙제를 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만도
기적이었다. 그때는 괴로웠으나 그러한
밑바닥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더없이
잘났다고 착각하며 지금껏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전성·종전·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생시절을 보낸 나에게
그래도 꿈을 주고 정신적인 의지를 준 것은
역시 책이었다. ❖